

# 미국에서의 생명정치(Bio-Politique), 1890년대-1930년대\*

김 호 언\*\*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생명정치, 푸코, 그리고 미국 우생학
- III. 죽어야 하는 생명, 부적격자는 제거하라!
- IV. 살아야 하는 생명, 적격자는 더 건강하게!
- V. 나오며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19세기말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전개된 생명정치(bio-politique)를 우생학(eugenics)을 중심으로 고찰해봄으로써 과학 지식과 권력의 상관관계 및 국가 통치 수단으로서의 생의학적 조치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새롭고 강한 국가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우생학이라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부적격자 제거와 적격자 향상의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미국에서 생명정치가 작동하는 역사적 맥락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생명정치와 푸코(M. Foucault)의 인식, 그리고 미국 우생학이 맺는 상관관계를 살피고, 3장과 4장에서는 미국에서 우생학이 구현해낸 생명정치의 모습을 죽어야 하는 생명과 살아야 하는 생명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질병·보건 정책을 통한 인구집단 관리에 내재된 함의를 밝혀주는데, 우생학이 얼마나 중요한 시안 인지를 부각시키면서 우생학사 연구 의제를 확장하고, 국가에 의한 다양한 생의학적 조치 실행을 비판적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는 성찰의 현재적 원리이다. 이 연구가 지금-여기의 과학기술문명을 폭넓게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4196).

\*\* 한양대학교 미래인문학융합학부

## I. 들어가며

이 연구의 목적은 19세기말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전개된 생명정치(bio-politique)<sup>1)</sup>를 우생학(eugenics)을 중심으로 고찰해봄으로써 과학 지식과 권력의 상관관계 및 국가 통치 수단으로서의 생의학적 조치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우생학이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적합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가 적합성을 위한 과학으로 기능했고, 그 자체로 인구 집단을 질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려는 생명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우생학史 연구는 우생학이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의 변이와 유전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을 넘어 인간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과 개입을 통해 국가 효율(National efficiency)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실천을 전개해왔고, 우생학이 과학과 이념 사이, 이론적으로는 유전과 환경 사이,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제거와 향상 사이에서 매우 중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밝혀주었다.<sup>2)</sup> 이는 골턴(Francis Galton)이 창안한 우생학이 매우 포괄적인 함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생론자들은 인종 퇴화를 우려하며 유전이 인간 퇴화의 원인이고, 인간 종을 과학적 방식으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생물학적 질 악화를 방지하고, 질적 향상을 이루어 사회진보를 달성하려는 신념만큼은 공유하고 있었다.

1) bio-politique라는 용어는 생명정치, 생명관리정치, 생체정치, 생물정치, 생체 통제정치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용어에 대한 단일한 범례도 학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의 사용례를 따라 생명정치를 사용한다. 푸코의 생명정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미셸 푸코, 『비정상인들』, 박정자 옮김 (서울: 동문선, 2001);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트르망 옮김 (서울: 난장, 2012);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서울: 난장, 201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 - 삶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 1990);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옮김 (서울: 동문선, 1998).

2)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서울: 아침이슬, 2009), pp.23-37.

이는 자연스레 생명정치와 연결된다. 생명정치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집합적 실재로서의 인구 수준에서 생명 과정에 개입하는 일련의 통치 전략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우생학과 연결되어 설명될 때,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본다. 우생학은 국가 전체의 생물학적 질을 관리하려는 통치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sup>3)</sup>

더불어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발전과 그것의 생명 과정에의 개입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다양한 이슈를 창출해가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 편집(조작), 줄기 세포를 이용한 재생 의학, 유전자 검사나 선별, 그리고 포스트 휴먼(강화인간) 등 단순한 예방이나 치료를 넘어 인간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조작을 현실화하면서 인간 삶의 생의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 생명을 매개로 과학 지식과 권력-경제의 연동 시스템을 구조화하면서 생명자본에 대한 논의를 분출시켰고,<sup>4)</sup> 이에 따라 인간 생명(건강)은 민감한 정치적·경제적 사안과 맞물려 다양한 논

3)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정치학의 포괄적인 연구경향도 우생학과 생명정치가 갖는 상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간 몸이나 생명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실천이 역사적 분석의 주제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생명정치학 연구는 크게 1) 신다윈주의 이론을 수용하여 인간 존재의 발달과 국가, 사회의 기원에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향, 2) 정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동물행동학과 사회생물학의 개념과 성과를 수용, 3) 생리학적 요인과 그것이 정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에 관심, 4) 인간 본성에 개입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현실의 정치문제(생명정책, biopolitics)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우생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테마들이다. 토마스 렵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옮김 (서울: 그린비, 2015), pp.40-41.

4) 이진경, 「근대적 생명정치의 계보학적 계기들-생명복제시대의 생명정치학을 위하여-」, 『시대와 철학』 18권 4호 (2007), pp.71-104; 맑스큐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현대자본주의와 생명』 (서울: 그린비, 2011); 카우시크 스테르라잔, 『생명자본』, 안수진 옮김 (서울: 그린비, 2012); 힐러리 로즈-스티븐 로즈 지음, 『유전자, 세포, 뇌』, 김명진·김동광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15); 잇다르타 무케르지,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이한음 옮김 (서울: 까치, 2016).

쟁을 야기하고 있다.<sup>5)</sup> 푸코(M. Foucault)가 제기했던 생명정치가 학문적·실천적 논의의 장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된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6)</sup> 이는 과거 인간 몸과 생명에 인위적인 관리와 통제를 시도했던 우생학 원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sup>7)</sup>

이런 점에서 우생학은 생명공학기술 시대의 인간 삶과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긴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우생학이나 생명정치와 관련된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어오지 못했다. 일부 서양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우생학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다.<sup>8)</sup>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천착하여 인간

5)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질병과 건강을 둘러싼 쟁점이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한 환자들 투쟁,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촛불집회,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김환석,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와 사회』 97 (2013 봄), pp.14-15; 김환석 편저,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서울:알렘, 2014); 김병수, 『한국 생명공학 논쟁』 (서울:알렘, 2014).

6) 서구에서는 『안전, 영토, 인구』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보다는 통치성 연구가 더 광대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Thomas Lemke, *Eine Kritik der politischen Vernunft: Foucaults Analyse der modernen Gouvern*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oller, ed.,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Mitchell Dean,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New Delhi: Thousand Oaks/Sage, 1999. 더 자세한 내용은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의 미셸 세넬라르가 쓴 강의정황 가운데 pp.531-533.

7) 김동광, 『생명의 사회사』 (서울:궁리, 2017).

8) Jo Youngran, "Eugenics, Public Health, and the Control of Tuberculosis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Britain," 『한국과학사학회지』 15 (1993), pp.211-224; 이성숙, 「산아제한과 페미니즘 -에니 배상트 사건과 맥스스주의」, 『영국연구』 8 (2002), pp.33-61; 이성숙, 「영국 빅토리아 시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학적 담론: 남녀클럽(1885-1889)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 (2004), pp.39-65; 염운옥, 「우생학과 여성」, 『영국연구』 13 (2005), pp.89-117; 廉雲玉, 『イギリス優生學運動と母性主義 -1907年から1930年までの「優生協會」の活動を中心に-』, 東京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4; 염운옥, 「

의 몸 또는 생명을 둘러싼 생명정치를 역사적 분석의 테마로 삼는 연구도 드물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위해 우생학이라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부적격자(the unfit) 제거와 적격자(the fit) 향상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이로써 미국에서 생명정치가 작동하는 역사적 맥락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는 우생학史 연구 의제를 확장하고, 오늘날 국가에 의한 다양한 생의학적 조치들의 실행을 비판적 시선으로 살펴보려는 기획의 일부이다. 역사는 성찰의 현재적 원리이다. 이 연구가 지금-여기의 과학기술문명을 폭넓게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II. 생명정치, 푸코, 그리고 미국 우생학

생명정치라는 개념과 그 용어의 사용은 20세기초 쉘렌(Johan Rudolf Kjellen)이 유기체주의 국가 개념을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쉘렌은 국가를 개인을 초월한 생명체로 간주하고, 이 생명체는 개인만큼이나 실재하

20세기 초 잉글랜드의 이혼법 개정과 우생학, 『역사비평』 64 (2003), pp.281-302;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단종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12 (2004), pp.235-271;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서울: 책세상, 2009); 박진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미국의 우생학 연구」, 『서양사론』 제90호 (2006), pp.185-186; 정세권, 「인간에 대한 “미국식 과학”의 형성: 대번포트(Charles Benedict Davenport)의 우생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0권 1호 (2008), pp.139-169; 박지현, 「양자대전의 생명담론과 프랑스 우생학」, 『한국서양사학회학술대회발표집』 12 (2008), pp.85-99.

9) 2009년 서양사학회가 주관한 「서양역사 속의 몸과 생명정치」라는 학술대회는 몸과 생명정치에 대한 서양사학자들의 집단적 문제의식과 관심사, 그리고 질적인 연구 수준을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적 연결은 부족했으나 확장 가능성을 읽어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민유기, 「은밀하지만 공적인 몸에 대한 역사가들의 질문들」, 『서양사론』 112호 (2012), pp.348-353;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몸과 생명정치로 본 서양사』 (서울: 푸른역사, 2011).

는 것이며 그 발전 도상에서 비대할 정도로 성장하고 점점 더 강력해진다고 보았다. 유기체주의 국가 개념은 국가를 법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본원적인 생명 형태로 이해한다. 이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역사의 주체가 단순히 개인이나 계급이 아니라 동일한 유전적 전통을 지닌 공동체라는 관념이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르게 물려받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민족들과 인종들이 자연적 위계를 지닐 것이었다. 이는 개인과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된다. 두 번째는 사회관계와 정치 문제가 궁극에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이념을 낳았다.<sup>10)</sup>

셸렌이 제시했던 생명정치 개념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변용되었다.<sup>11)</sup> 그 가운데 푸코가 제시한 생명정치 개념은 오늘날까지 가장 커다란 인식론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푸코는 인종주의적 토대를 지닌 국가에 대한 분석 속에서 생명정치를 논했다. 그는 인간 생명(life)의 모든 측면에 가해지는 정치권력의 충격과 적용, 즉 생체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구집단을 규제하는 국가 통치 전략을 생명정치로 규정했다.<sup>12)</sup> 푸

10) 토마스 램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pp.30-32.

11) 생명정치는 나치(Nazi)의 인종 정책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사용된 바 있고,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와 동일한 의미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하트(Michael Hardt)와 네그리(Antonio Negri)처럼 신체와 생명(the body and life)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행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정치, 정책, 그리고 윤리를 논할 때에도 생명정치라는 표현과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정치라는 개념이 인간 생명과 관련하여 매우 넓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12) 푸코는 오래도록 생명정치 문제에 천착했는데, 생명정치라는 용어와 개념은 리우데자네이루대학 사회의학연구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등장한다. 푸코는 자본주의가 신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논하며 “사회에 의한 개인의 통제는 의식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 내에서, 신체와 더불어 시행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생물학적인 것,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생명관리정치이다. 신체는 생명관리정치의 현실이고 의학은 생명관리정치의 전략이다”(M. Foucault, “La Naissance de la medecone sociale”(1977), *Dits et Ecrits*, t.3)라고 했다. 더불어 국가의학은

코는 생명정치(또는 권력)를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sup>13)</sup>로 인식한다. 푸코는 기본적으로 18세기 이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 종을 구성한다는 생물학적 지식의 발전에 기초하여 근대 사회가 재구성되는 계기가 부여되었다고 파악한다.<sup>14)</sup>

푸코는 “19세기의 기본적 현상 중의 하나는 소위 생명에 대한 권력의 관심인 것 같다. 권력이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장악하는 것, 생물학의 국유화라고나 할까, 아니면 적어도 생물학의 국유화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으로의 정도현상”<sup>15)</sup>이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푸코는 국가가 인종주의를 차용한 결과로 생명권력이 부상한다고 본다. 즉 국가 권력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인종주의가 활용되면서, 생명은 살아야 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인간이라는 종 사이에는 등급이 매겨져 좋은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있다는 인식을 낳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등한 인종이 좀 더 사라지고, 비정상적 개인들이 좀 더 제거된다면 종의 퇴화를 좀 더 잘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 개인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 나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활기차게 살아남아 많은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이다. 타인의 죽음, 다시 말해 나쁜 인종과 열등한 인종(혹은 퇴화된 인간이나 비정상적인 인간)의 죽음은 인류 전체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순수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었다.<sup>16)</sup>

---

도시의학, 노동의학 등으로 변하며 신체를 생산과정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그래서 도시의학, 노동의학은 종으로서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전제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보건적 조절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푸코, 『육신이 해체』, 『안전, 영토, 인구』, pp.540-542.

13) 푸코, 『안전, 영토, 인구』, p.17.

14) 푸코, 같은 책, pp.126-128의 자연사와 생물학의 발전과 안전 메커니즘의 관련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라.

15)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p.277.

16) 푸코, 같은 책, p.294.

인종주의와 결합된 권력 메커니즘은 성(性)의 문제로 통합되어 발현된다. 성은 그 생식적 효과 때문에 개인의 육체가 아니라 인구라는 집단적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과정 안에 기재되며, 거기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성이 개인적 질병의 근원이자, 퇴화의 핵심으로 개인적 신체와 집단적 인구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sup>17)</sup> 이제 성은 자연스레 생식 문제와 연동하여 논의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적 방종이나 타락은 단순히 질병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에 의해 후손에게 이 전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성과 연동된 생식 문제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얇이나 규율의 문제는 생명정치에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푸코는 생명정치를 구현하는 권력은 이전의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지배의 전략과 기술을 구비한 권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생명정치는 인구의 출생률, 수명, 사망률, 발병률, 사회적 환경, 인구 이동 같은 지식의 총체화와 결부된 문제에 속하게 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생명정치는 단지 생명의 억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과도 연동되고, 이를 통해 권력은 생명에 대해 실질적인 조절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생명정치(권력)는 이전의 규율 권력과 그 대상 면에서 개인의 신체에서 인간 종 전체로, 수단 면에서 통제(규율)에서 조절(관리)로의 전환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생명 조절·관리의 주체도 단순히 주권자가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sup>19)</sup>

이런 측면에서 우생학은 그 자체로 생명정치의 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골턴은 인간의 열등한 유전 형질이 확산되는 것은 인종을 퇴화시키는 사회적 공포이므로 통제되어야 하며(negative eugenics), 우수한 능력을 지닌 전문직 계층의 출산을 저하 경향은 적극적으로 조절할

17) 푸코, 같은 책, pp.280-290.

18) 푸코, 『성의 역사 I』, pp.156-158.

19)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p.277 & p.294; 푸코, 『성의 역사 I』, pp.149-155.



필요가 있다(positive eugenics)는 주장을 했다.<sup>20)</sup> 이는 제거와 향상(또는 통제와 조절, 또는 배제와 선택)이라는 원리가 우생학의 핵심이었음을 알려준다. 우생학은 죽어야 할 생명과 살아야 할 생명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통치 전략으로서의 생명정치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우생학이 19세기말 인종적 질 악화를 우려하면서 등장했던 퇴화론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퇴화론은 프랑스 의학자 모렐(Benedict A. Morel)이 주장했던 이론으로 문명화 결과로서 생존 경쟁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허약한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함으로써 인간 종의 질적 하락과 타락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sup>21)</sup> 골턴은 다

20) F. Galton, "The Possible Improvement of the Human Breed," in *Essays in Eugenics* (London: Eugenics Education Society, 1909), pp.24-26.

21) 퇴화론은 1870년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에서 등장했던 인구 감소와 인구 질 저하에 관한 담론 가운데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당시 프랑스 다수 지식인들은 보불전쟁 패배의 원인을 인구 감소와 그 질의 쇠퇴에 있다고 믿었다. 이른바 인구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프랑스에서 인구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면에는 19세기말 프랑스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지적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의학적 사고의 침윤이다. 인구주의는 의학적인 사고가 사회적인 영역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인구주의의 바탕에는 퇴화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모렐을 비롯한 당시 정신의학자들은 프랑스 쇠퇴를 사회적으로 확장된 몸의 문제로 인식했고, 결국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구의 질 저하를 막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인구 감소를 결국 이 퇴보의 가장 큰 병증으로 인식한 것이다. 의학적 사고의 침윤은 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인체로 치환하고 그 정신적·물적 상황을 인체의 건강도로 다시 치환하여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갱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다른 흐름은 통계학의 발전이다. 인구주의가 새로운 사조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계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를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조건들이다. 우생학 탄생에도 영향을 끼쳤던 케틀레는 평균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지배의 대상을 공화국을 구성하는 시민, 즉 정치·경제·문화적인 개인들에서 수량화될 수 있는 추상화된 개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구는 통계적으로만 의미를 갖는 대상이기 때문에 인구주의는 통계학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 퇴화론과 통계학은 단기적으로는 보불전쟁의 패배에 의해 촉발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논리에 의해 움직였으며, 그 기저에는 사회와 지배의 성격에 대한 지적인 전환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pp.45-50; 영국에서는 보이

윈(Charles Darwin)의 진화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유전되는 퇴화를 막을 목표로 우생학을 창안했다. 이후 퇴화론은 인종 퇴화(race degeneracy)라는 관념으로 확장되었고, 퇴화는 부모 세대의 정신적·육체적 질병이 자손에게 이전될 경우로 이해되면서, 이런 퇴화가 집단적 수준에서 발생하여 부적격한 존재들이 확산된다면 이는 인간 생물학적 질의 전반적인 쇠퇴와 국가 효율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졌다.<sup>22)</sup> 따라서 특정 집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퇴화를 막을 필요가 있었고, 이는 부모 세대의 생식을 관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실천적인 주장을 정당화했다.<sup>23)</sup>

미국은 남북전쟁(Civil War) 이후 분열된 국가를 동질적인 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통합하고, 이로써 새롭고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추구했던 이들은 효율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강조하며, 공중보건, 주택개조, 독과점 근절, 그리고 정부 개입을 통한 노동 시장 안정화 등 이른바 혁신주의(progressivism) 개혁으로 발전했다.<sup>24)</sup> 이는 우생학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생학과 혁신주의는 집단의, 효율, 과학주의, 그리고 정부에 의한 사회 통제라는 핵심 요소를 공유했다.<sup>25)</sup> 우생론자들과 혁신주의 사회개혁가들은 인구 집단의 전체적인

---

전쟁을 겪으면서 인종 퇴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이는 우생학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염운옥, 「1899-1906년 영국의 인종퇴화론에 관한 연구-우생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史叢』 46(1997), pp.367-411.

22) Robert R. Rentoul, *Race Culture: Or, Race Suicide* (N.Y.: Walter Scott, 1906), p.1.

23) 인종 퇴화의 공포가 중간 계급의 정신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인종 퇴화에 대한 공포가 20세기 초 영국의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전제로 삼는 담론 틀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pp.22-37.

24) 박진빈, 『백색국가건설사』, pp.10-27; 황혜성, “미국 혁신주의운동의 선구자들에 관한 연구,” 『미국사연구』 6 (1997), pp.59-79.

생물학적 질 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생의학적 조치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정당화했다.

푸코는 근대 권력과 그 지배의 핵심은 생체권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보았다. 미국에서 전개된 인구 수준의 생물학적 질 관리는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국가 권력의 통치 전략이었다. 우생학은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질 관리를 통해 국가 효율과 사회 진보를 달성하려 했던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과학 지식이자 이념이었고, 이는 생식과 관련한 문제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우생학은 인간 생명(건강)과 삶의 질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을 탄생시킨 원인이었고, 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이것이 미국에서 전개된 우생학을 생명정치의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까닭이다.

### III. 죽어야 하는 생명, 부적격자는 제거하라!

생명정치는 인구 집단의 전체적인 생물학적 질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안은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질을 악화시키는 부적격 인자는 통제하고 제거하며, 적격한 질은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향상시킬 것인가. 쉽게 말해, 적격자는 국가 효율에 도움이 되는 존재이고, 부적격자는 그 반대인 존재이다. 19세기말 당시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고 새롭게 만들 국가는 강한 국가여야 했다. 강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 효율에 달렸고, 이는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질의 우수성에 좌우될 것이었다. 우수한 개체의 생식을 장려하고, 열등한 인자의 생존과 유입은 통제해야

25) Thomas C. Leonard, "American Economic Reform in the Progressive Era: Its Foundational Belief and Their Relation to Eugenic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41 (1), 2009, pp.136-137.

할 이유였다.

푸코는 생명정치가 국가 차원의 생명 조절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성과 생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체와 집단적 인구를 대상으로 삼으며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푸코의 시선으로 보면, 부적격자에 대한 통제와 제거를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우생학적 입법들은 생명정치가 구현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다.<sup>26)</sup> 미국에서 제정된 우생학적 입법은 집단적 인구를 조절하고 관리하며 생산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질적 보존을 꾀하려는 권력 메커니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죽어야 할 생명에 대한 통제를 혼인 제한에 관한 사항부터 살펴보자. 혼인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혼인이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공적 사안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7)</sup> 이 때문에 혼인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는 선택과 배제라는 우생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통치 도구로 기능할 여지가 있었다. 결혼은 적격한 시민을 출산하는 첫 관문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생식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새롭고 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자거나 무가치한 이들의 과도한 출산, 간질, 정신이상자, 청각장애, 성병환자, 음주벽 등 이른바 오염된 개인들의 혼인 방치는 국가라는 집단적 공동체의 질적 우수성 확보와 유지 보존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국가는 효율과 사회 진보에 필요한 육체적·도덕적·정신적 특질을 관리하고 적격한 미래 세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구 집단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정책 당국자들은 결혼의

26) 구체적인 입법 사례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분석했다. 김호연, 「20세기 초 미국의 과학과 법」, 『서양사학연구』 26 (2012), pp.111-144; idem,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pp.169-186.

27) 남북전쟁 이후 인종 혼합은 사회적 질서 유지에 반하는 공포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종 혼합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eter W. Bardaglio, *Reconstructing the Household: Families, Sex, and the Law in the Nineteenth-Century South*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중요성과 이에 따른 결혼 상대자 선정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선전을 했다.<sup>28)</sup>

코네티컷(Connecticut)에서 제정된 최초의 우생학적 혼입법(1895)에서는 정신박약, 저능아들, 그리고 간질같은 유전병이 있는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sup>29)</sup> 혼인에 대한 국가 개입은 공동체의 건강과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명분이었다. 이는 많은 주들에서 혼인 제한을 정당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인디애나(Indiana)에서 1905년 제정된 혼인법에서는 정신이상자, 유전적 질병을 갖은 자, 그리고 음주벽이 있는 사람을 혼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징적인 점은 빈곤을 혼인 제한의 이유로 규정한 것인데, 이는 빈곤을 유전되는 생물학적 질병과 동일한 범주로 인식한 결과였다. 이 법에서는 5년 이내에 빈곤 때문에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남성은 혼인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 남성은 가족 부양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혼인 가능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sup>30)</sup> 이는 인간 실존을 유전이라는 생물학적 특질과 연관시키고, 이를 우생학이라는 과학 지식에 근거하여 국가라는 권력이 통제하는 생명정치 메커니즘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는 빈곤뿐만 아니라 성병이나 부랑자도 혼인 제한 사유가 되었는데, 이는 생존 조건의 미약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던 이민자나 열악한 생활 조건에 처한 빈민자 등 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측면이 있었다.<sup>31)</sup> 따라서 혼인 제한은

28) Elsie Clews Parsons, *The Family* (New York: G.P. Putnam's Sons, 1906), p.344: 자손의 생물학적 질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달렸고, 특히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리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Editorial -"Parenthood," *The Independent* 64 (1908), pp.644-645.

29) Connecticut General Statute 1354-1356 (1895). 코네티컷 단종법은 1918년에 제정되었다. Connecticut General Statute 2691.

30) Ind. Code Ann. 8365; Jesse Spaulding Smith, "Marriage, Sterilization and Commitment Laws Aimed at Decreasing Mental Deficiency," *Journal of Criminal Law* 5 (1914), pp.364-366.

국가 차원의 생물학적 질 유지와 향상에 위험이 되는 모든 대상을 잠재적인 혼인 제한 대상으로 상정할 위험성이 짙었다. 실제로 이후 제정된 혼인 제한 입법에서는 제한 범주와 대상이 넓어져 불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까지 혼인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1929년에 이르면 29개주에서 혼인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주에서는 의사에게 혼인 자격을 인정을 위한 건강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도 했다.<sup>32)</sup> 혼인 제한은 인종 간 혼혈을 막으려는 세력에게도 훌륭한 수단이었다. 18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인종 간 혼인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점점했고, 18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민은 혼인 제한이 인종적 차별의 맥락에서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sup>33)</sup>

혼인 제한이 내부의 타자들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면, 이민 제한은 외래로부터의 생물학적 질 악화를 유발하는 요소들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혼인 및 이민 제한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민 제한은 19세기말 미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배외주의(nativism)와 결합하며 설득력을 확보했다.<sup>34)</sup> 1882년 중국인 이민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은 연방 차원에서 인종적 분류에 의해 노동 인력을 제한했던 첫 사례였다. 이 법은 10년 시한으로 제정되었으나, 1892년(the Geary

31) 1909년 제정된 워싱턴(Washington) 혼인 제한법에서는 45세 이하의 여성 또는 모든 나이의 남성(45세 이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제외)이 음주벽, 습관성 범죄, 간질, 바보, 정신박약, 백치 또는 정신이상 등이 있는 사람, 유전적으로 정신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결핵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성병 환자들의 혼인을 제한했다. Wash. Comp. Stat. Ann. 8489.

32) Chester Vernier, *American Family Laws*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1), pp.200-202.

33) "Heredity and Human Progress," *The Nation* (1900.11.1), p.350.

34) 미국 이민사 연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오영인, 「미국 이민사연구의 동향과 전망」,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11 (2014), pp.39-47; 황혜성, 「다채로워진 미국 이민사 연구」, 『서양사론』 93 (2007), pp.215-245.

Act)에 이르면 영구화된다. 이 법에서는 인종적 편견에 기초하여 입국을 제한하려했던 중국인말고도, 전과자, 미치광이, 저능아, 그리고 사회적 부담이 될 소지가 있는 자들도 이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sup>35)</sup> 이는 이민 규제의 현실적인 동기가운데 하나는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후일 이는 남동유럽 이민자 규제로 발전했는데, 이는 미국 주류 사회가 남동유럽 이민자들을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와 공화주의를 발전시킨 미국에 부적합한 부류라는 인식에 기인했다. 단순히 열등한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자립과 자치 정부 문제를 계승하기에 적합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사상과 능력이 부족하고 자유란 황인종, 또는 홍인종, 흑인종에게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었다.<sup>36)</sup>

1891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891)에서는 범죄자와 생물학적 병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인간 신체가 관리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다음의 계층은 미국 입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모든 천치, 정신이상자, 간질, 그리고 5년 이내에 정신 이상을 보였던 사람들; 빈곤자들; 공공의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거지; 악취가 나거나 위험한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 중범죄자나 파렴치범.”<sup>37)</sup> 1917년 이민법(Asiatic Barred Zone Act)에서는 입국 거부 대상으로 모든 백치, 바보, 정신박약아, 간질병 환자, 정신착란자, 1회 이상 광적인 행태를 나타낸 적인 있는 사람, 정신질환이나 열등성이 있는 사람, 만성 알코올 중독자, 빈민, 직업적 거지, 떠돌이, 결핵 환자를 포함했고, 범죄자, 정부 전복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무정부주의자, 다혼주의자까지 폭넓게 이민 제한 대상으로 넓혔다.<sup>38)</sup> 우생학적 논리가 가장 큰 영

35) Chinese Exclusion Act, May 6, 1882. [http://avalon.law.yale.edu/19th\\_century/chinese\\_exclusion\\_act.asp](http://avalon.law.yale.edu/19th_century/chinese_exclusion_act.asp)(2017.12.26.)

36) 박진민, 『백색제국건설사』, p.109; 손영호, 「딜링햄위원회의 이민보고서: 내용 분석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 미국사연구 20(2004), pp.89-117.

37) 26 Stat. 1084 (1891).

38) Immigration Act of 1917 (Asiatic Barred Zone), [http://www.noracoglandfindire/immigration/act\\_of\\_1917/071226](http://www.noracoglandfindire/immigration/act_of_1917/071226)

향력을 미쳤고, 국적에 따라 이민 제한을 강화했던 1921년 이민법(Johnson Act)과 1924년 이민법(Johnson Reed Act)은 이민 문제가 생물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1924년의 이민제한 입법은 미국의 대표적인 우생학자인 러플린(H. H. Laughlin)이 전문가로 참여해 탄생한 것이다. 그는 이민 및 귀화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미국 인종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물학적 질을 갖고 있는 외래자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의 재생산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러플린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 했다.<sup>39)</sup> 우생학이라는 과학 지식은 이민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초가 된 것이다.<sup>40)</sup>

이민 제한이 외래 불순물을 막는 것이었다면, 단종법(sterilization act)은 혼인 제한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발로였다. 미국에서 첫 번째 합법적인 단종법은 1907년 인디애나(Indiana)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범죄자, 백치, 바보, 그리고 강간범의 생식을 금지했다. 판정은 의사 2명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생식 금지 대상자의 정신적·육체적 조건을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sup>41)</sup> 단종법의 주요 대상은 정신박약(feble-minded)에 해당하는 사람

39) 러플린이 제시했던 자료는 후일 과장되었음이 밝혀졌다. 러플린이 1920년 4월 이민 및 귀화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이민의 생물학적 측면”(Biological Aspects of Immigration)이었다. H. H. Laughlin, *Biological Aspects of Immigration: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House of Representatives Sixty-Sixth Congress Second Session April 16-17, 1920* (Statement of Harry H. Laughlin,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26432 1921), p.17

40) 이민규제는 미국의 효과적인 인구 관리 방식의 하나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정치의 또 다른 양상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와 히스패닉계를 대상으로 삼는 캘리포니아 187 발의안(1994.11.08.), PRWORA(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 1996), 센센브레너 법안(2006), 그리고 케네디·킬 법안(2007) 등이 통과된 바 있다.

41) 원문은 다음을 보라. Acts 1907, *Laws of the State of Indiana* (Indianapolis: William B. Burford, Publisher, 1907), pp.377 - 378 (chapter



들이었다. 1924년에 정신박약은 세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백치, 바보, 그리고 중간백치(imbecile)가 그것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백치를 정신 연령이 35개월 미만의 정신장애자로 정의했다. 그러나 중간백치와 바보는 허점이 많은 분류 범주였다. 서류상으로 덜 심각한 유형의 인지 장애를 가리켰지만, 실제로는 매춘부, 고아, 침울한 사람, 떠돌이, 경범죄자, 조현병자, 독서장애자, 페미니스트, 반항적인 청소년 등 정신질환이 없는 집단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남녀 집단에 두루 쓰이는 용어들이었다. 한 마디로 행동, 욕구, 선택, 외모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진 경계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sup>42)</sup>

벅 대 벨 사건(Buck v. Bell Case, 1927)은 정신박약자에 대한 통제와 제거를 극단적으로 실현한 대표적 사례였다. 이 사건은 버지니아에서 1924년 제정된 단종법의 합헌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버지니아 단종법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복지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신박약자에 대한 강제 불임화 수술을 명시했다. 이 법에서 남성은 정관절제(vasectomy), 여성은 난관절제(salpingectomy)를 통해 불임화 수술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 결함자의 확산이 사회의 공포를 가져오고, 정신이상, 백치, 바보, 간질, 범죄는 유전되므로, 병원에서의 판정이 있다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생식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sup>43)</sup> 이 판결은 우생학자들이 캐리 벅(Carrie Buck)이라는 여성을 버지니아 단종법 대상자로 규정하고, 정신박약임을 내세워 강제 불임화 수술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근거가 미약했기에 대법원에서 이를 가리기 위함이었다.<sup>44)</sup> 당시 버지니아 단종법이 합헌임을 결정했던 재판부는 공중보건

---

215).

42) 무케르지,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p.109.

43) Virginia Acts of Assembly, Chap. 394, 1924[S B 281](1924.3.24).

44) 캐리 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Paul A. Lombardo, *Three Generations, No Imbecil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을 통한 인구 집단 전체의 생물학적 질 관리와 사회적으로 부적격한 존재들의 생식 제한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동일한 수준의 정책적 사안으로 인식했다.<sup>45)</sup> 캐리 벅은 결국 단종 수술을 받았고, 이로써 정신박약을 포함한 부적격자의 생식 제한은 합법적인 국가 통치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았다.

요컨대 미국에서 제정된 우생학적 입법과 실행은 죽어야 할 생명, 즉 제거할 자에 대한 판단 근거를 과학지식이 제공하고, 실행은 법률의 형태로 국가가 수행하는 지식-권력의 상보적인 통치 구조, 즉 생명정치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IV. 살아야 하는 생명, 적극자는 더 건강하게!

미국에서는 우생학적 입법을 통해 부적격자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자의 생존과 그 질을 향상하려는 흐름도 있었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도덕적 적합성을 획득하여 순수한 생물학적 질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다.<sup>46)</sup> 도덕적 적합성의 획득이나 순수한 생물학적 질의 유지 및 개선은 부적격자의 제거만으로는

45) 당시 재판부가 인용했던 1905년 제이콥슨 대 매사추세츠 판결은 백신 강제 접종을 주정부의 경찰력 행사 범위 안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전염병 유행에 대한 주정부의 강제 조치는 헌법적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것이었다. *Jacobson v.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197 U.S. 11 (1905). 캐리 벅에 대한 판결은 이를 기초로 정신박약자에 대한 강제 단종도 헌법적 권위와 정당한 주정부의 헌법적 권위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강제 백신을 지지하는 원리는 나팔관 제거까지도 포함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것이다. *Jacobson v.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197 U.S. 11. 정신박약자는 삼대로 충분하다.” *Buck vs. Bell*, Superintendent of State Colony for Epileptics and Feeble Minded. Decided May 2, 1927, 274 U.S. 200.

46) 이하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김호연, 「미국의 우생학(eugenics)과 사회개혁, 1880년대-1920년대」, 『동국사학』 57 (2014), pp.653-680.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기 때문에 적격자의 질적 개선이나 생식도 장려하는 편이 훨씬 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골턴의 주장과도 조응하는 것이었다. 우생학은 기본적으로 인간 개선을 위해 출산의 질적 수준을 강조한다.<sup>47)</sup> 골턴은 우생학 창안 초기에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질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적격한 존재의 생물학적 질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야만 한다는 네거티브 우생학을 강조했다.<sup>48)</sup>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골턴은 우생학을 인종의 타고난 질을 개량하는 모든 영향과 그 질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모든 요인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확대하면서 인종 개선은 적격한 존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바 있다. 골턴은 인종을 개량하는 것은 천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두 측면에서 통제와 향상 모두에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sup>49)</sup> 왜냐하면 인종 개량은 무엇보다 자손의 생물학적 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이는 유전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생물학적 질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생물학적 질, 즉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가 일차적인 관심 대상일 수 있고, 이는 우생학이 다양한 건강 개혁 운동들과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미국에서 적격자를 향상시키는 일은 우생학 대중 조직들이 선도했다. 여러 우생학 조직의 설립 목적은 인종의 유전 형질을 조사 보고하고, 여성 혈통의 사회적 가치와 열성 혈통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함으로써 건전한 미국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적격자 향상 운동은 미국 우생학 협회(the American Eugenics Society, 이하 AES)가 주도했

47) C. B.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New York: Henry Holt, 1911), p.1.

48) F. Galton,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1883), p.17.

49) 이는 골턴이 당시 명확한 유전 이론을 구축하지 못했던 데 기인한다. 이는 후일 우생학이 유전론과 환경론 사이에서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전개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F. Galton, "Eugenics: Its Definition, Scope and Aims," *Essay in Eugenics* (1909), pp.34-35.

다. AES는 주로 성과 아동 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1907년 결성되었고, 이후 급속히 확장하여 28개주에 위원회를 구축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AES의 활동은 우생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고, 이들의 주장도 점점 확대되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전체의 질적 보호, 자원으로서의 인종 관념, 그리고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인종 개선 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sup>50)</sup>

AES가 벌인 가장 대표적인 적격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적합한 가정 캠페인(Fitter Families Campaign)이었다.<sup>51)</sup> 이 캠페인은 미국인들의 정신, 감정, 육체, 그리고 지적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 기저에는 가족 육종처럼 인간도 동일한 유전 법칙에 의해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적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우생학 기록 사무국(eugenics record office)의 도움을 받아 가계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권고했다.<sup>52)</sup> 이 캠페인은 1920년 캔사스 무역 박람회(Kansas Free Fair)에서 소개된 뒤, 매년 AES의 주관으로 7-10개 주에서 시행되는 적합한 가정 선발대회로까지 발전했다. 이 선발대회는 1920년대 말까지 40개 이상의 후원단체가 등장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며 개최되었다. 선발대회에 참여한 가족들은 자녀의 수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뉘어 경쟁을 벌였다. 여기에 참여한 모

50) Barry Mehler, *A History of the American Eugenics Society, 1921 - 1940*, Diss, University of Illinois, 1988; Maurice A. Bigelow, "Brief History of the American Eugenics Society," *Eugenic News* 31 (1946), pp.49 - 51; Frederick Osborn, "History of the American Eugenics Society," *Social Biology* 21 (1974), pp.115 - 126.

51) Robert W. Rydell, *World of Fairs: The Century of Progress Exposi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3), pp.45-50.

52) 우생학 기록 사무국은 미국인들의 가계 조사를 통해 유전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정리함으로써 미국 우생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arland E. Allen, "The Eugenics Record Office at Cold Spring Harbor, 1910-1940: An Essay in Institutional History," *Osiris* Vol. 2 (1986), pp.225-264.

든 사람들은 매독이나 정신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첨부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sup>53)</sup> 대회를 통해 표준적인 미국인 가정을 선별하고, 이 가정의 이미지가 대중들에 이상적인 가정의 표본으로 인식되었고, 골턴이 주장했던 우생학적 존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진짜 적격자가 누구인가를 대중들에게 선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적합한 가정 캠페인은 우량아 운동(better babies movement)에서 비롯한 운동이었다. 우량아 운동은 적합한 아동 보호와 건강 유지를 위해 우생학적 차원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에게 권고할 목적으로 시작했다.<sup>54)</sup> 이 운동의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아동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종 퇴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우량아 운동에서는 태아에게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엄마가 생물학적 질 관리를 위해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이 운동은 1908년 루이지애나(Louisiana) 박람회에서도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이는 시민활동가들이 주도하며 아동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건강한 육체와 활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우량아 운동은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퍼져나가 우량아 선발대회가 열리고, 우량아 클리닉이 생겨났으며, 우량아 주간이 선포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우량아 운동에서 주로 강조한 사항은 부모, 특히 엄마가 적절한 위생, 식이요법, 그리고 아동 훈육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생물학적 질을 유지하고 더욱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더 우수하게 양육하는 길이라는 점이었다.<sup>55)</sup> 우량아 운동은 1914년 제1차 인종 개선 회의(National Conferences on Race Betterment)에서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네거티브 우생

53) D. Kevles, *In The Name of Eugen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85), p.62.

54) F. B. Sherbon, "Popular Education," *Eugenics* 1(1928), p.33.

55) Marilyn Irvin Holt, *Linoleum, Better Babies, and the Modern Farm Woman, 1890 -1930* (1995).

학과 포지티브 우생학이 모두 소개되었는데, 우량아 운동은 포지티브 우생학의 한 방안으로 6개월부터 9살 사이의 아동 600명의 정신 및 육체 역량을 조사하여 등급화한 뒤, 각 등급별 아동 상태를 미국 전역에서 모인 우생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sup>56)</sup> 이는 자연스레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전국적인 관심으로 받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적합한 가정 캠페인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AES의 활동과 더불어 이른바 환경우생학(euthenics)도 적격자의 질 향상을 도모했던 포지티브 우생학에 해당한다. 환경우생학은 공중보건과 가정관리라는 방법론이 국가라는 유기체의 건강한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던 사회개혁 운동의 하나였다. 창안자인 리처드(Ellen H. Richards)는 인간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이 환경우생학이고,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며, 위생 과학이나 생활 과학을 활용한다면 인종 개선까지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sup>57)</sup> 그녀는 좋은 삶을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논했다. 가정 내에서의 가족 건강과 도덕성 함양 그리고 행복한 삶은 국가효율이나 사회진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야만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가 번영의 핵심은 시민의 건강과 도덕성에 있고, 시민의 건강과 도덕성은 음식이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판가를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 환경과 양육 상태에 주목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보 또는 국가번영에 필수적인 문제라는 식이다.<sup>58)</sup>

일련의 적격자 향상 프로그램은 부적격자 제거를 주된 목표로 삼았던

56) National Conference on Race Betterment, *Proceedings of the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Race Betterment*, (Battle Creek, Mich., Gage Printing Company, Ltd., 1914).

57) Ellen H. Richards, *The Cost of Shel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05), p.ix & p.12.

58) Ellen H. Richards, *Food Materials and their Adulterations* (Boston: Whitcomb & Barrows, 1906), p.4

네거티브 우생학과 짝을 이루며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강한 국가 만들기에 적합한 국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거와 향상 프로그램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며 공존할 수 있었다. 부적격자 제거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미국 우생학자인 대븐포트(C. B. Davenport)도 우수한 형질의 확산은 국가 원형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적격자로 예술가들, 음악가들, 과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원 이주민인 백인 프로테스탄트를 상정하여 이들의 생물학적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필요를 인정했다.<sup>59)</sup> 이는 환경을 개선하건 유전을 통제하건 미국인들이 건강하고 완전한 세대의 전승을 달성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다.<sup>60)</sup> 궁극적으로 일련의 적격자 향상 프로그램은 인종 독소(race poison)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는 공중보건, 사회복지, 그리고 위생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이것들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sup>61)</sup> 이는 살아야 하는 생명의 질 관리를 통해 국가 전체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 V. 나오며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인간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치·경제 사안과도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이슈를 창출하고 있다. 생명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이다. 푸코는 생명정치를 집합적 실재로서의 인구 수준에서 생명 과정에 개입하는 국가의 통치 전략으로 정의했고, 이는 인간 종의 서열화에 기초했으며, 그 결

59)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pp.248-249.

60) Leon J. Cole, "The Relation of Eugenics to Euthenics," *Popular Science Monthly* 81 (1912), pp.476-479.

61) Maynard M. Metcalf, "Eugenics and Euthenics," *Popular Science Monthly* 84 (1914), pp.383-385.

과 생명은 살아야 하는 것과 죽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조절·관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생학과 생명정치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생학은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 전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고, 우생학은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질을 조절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효율과 사회 진보를 달성하려는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 기능했다. 골턴은 인간이 지닌 바람직한 형질은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고, 열등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형질은 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말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전개된 일련의 우생학적 입법, 즉 혼인법, 이민제한법, 그리고 단종법은 부적격자의 통제와 제거를 추구했고, 적합한 가정 캠페인이나 우량아 운동 그리고 환경우생학은 적격자의 질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면서 생명정치를 구현하려 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그리고 20세기 전반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우생학을 주요한 통치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면서 생명정치를 구현하려 했을까. 이는 무엇보다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 효율 달성의 관건이자, 사회진보와 문명화를 위한 전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가 생명정치 사례로서 우생학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효율, 경제성, 국가 경쟁력, 심지어 개인 행복마저도 생의학적 기술과 연계된 생명 질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이 강한 지금-여기이다. 우리가 효율과 이에 기초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적격자와 부적격자로 인간 등급을 매기는 것이 무의식적인 규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인간 생명은 언제든 강제와 자유 그리고 평등과 불평등 사이에서 실존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강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강제하거나 복지와 보건, 고용, 보험가입, 결혼, 이민 등 많은 문제들이 생의학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우리 삶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결부된 정치경제 논리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포획되어 가고 있다. 지금-여기에서 생명



정치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 우생학이 그려낸 세계와 향상의 역사를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투고일자: 2018.2.10, 심사일자: 2018.2.24, 게재확정일자: 2018.3.17.]

K C I

## 참 고 문 헌

### <법률들>

- 26 Stat. 1084 (1891).  
274 U.S. 200 (1927).  
Acts 1907, Laws of the State of Indiana (Indianapolis: William B. Burford, Publisher, 1907), pp. 377-378(chapter 215).  
Chinese Exclusion Act, May 6, 1882.  
Connecticut General Statute 1354-1356 (1895).  
Connecticut General Statute 2691 (1918).  
Immigration Act of 1917("Asiatic Barred Zone").  
Ind. Code Ann. 8365.  
Jacobson v.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197 U.S. 11 (1905).  
Virginia Acts of Assembly, Chap. 394, 1924.  
Wash. Comp. Stat. Ann. 8489.

### <연구문헌>

- 김동광, 『생명의 사회사』, 서울:궁리, 2017.  
김병수, 『한국 생명공학 논쟁』, 서울:알렙, 2014.  
김호연, 「20세기 초 미국의 과학과 법」, 『서양사학연구』 26, 2012.  
김호연, 「미국의 우생학과 사회개혁, 1880년대-1920년대」, 『동국사학』 57, 2014.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서울:아침이슬, 2009.  
김환석 편저,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서울:알렙, 2014.  
김환석,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와 사회』 97, 2013.  
맑스코무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현대 자본주의와 생명』, 서울:그린비, 2011.  
미셸 푸코 『비정상인들』, 박정자 옮김, 서울: 동문선, 2011.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옮김, 서울: 동문선 1998.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토르망 옮김, 서울: 난장, 2012.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 - 앞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 1990.

-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서울: 난장, 2011.
- 민유기, 「은밀하지만 공적인 몸에 대한 역사가들의 질문들」, 『서양사론』 112, 2012.
- 박지현, 「양차대전의 생명담론과 프랑스 우생학」, 『한국서양사학회학술대회발표집』 12, 2008.
- 박진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미국의 우생학 연구」, 『서양사론』 제90호, 2006.
- 박진빈, 『백색제국건설사』, 서울: 엘피, 2006.
- 손영호, 「딜링햄위원회의 이민보고서 : 내용 분석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 『미국사연구』 20, 2004.
- 싯다르타 무케르지,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이한음 옮김, 서울: 까치, 2016.
- 염운옥, 「1899-1906년 영국의 인종퇴화론에 관한 연구-우생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史叢』 46, 1997.
- 염운옥, 「20세기 초 잉글랜드의 이혼법 개정과 우생학」, 『역사비평』 64, 2003.
-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단종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12, 2004.
- 염운옥, 「우생학과 여성」, 『영국연구』 13, 2005.
- 廉雲玉, 『イギリス優生學運動と母性主義 -1907年から1930年までの「優生協會」の活動を中心に-』, 東京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4.
-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서울: 책세상, 2009.
- 오영인, 「미국 이민사연구의 동향과 전망」,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ts) 11, 2014.
- 이성숙, 「산아제한과 페미니즘 -애니 베상트 사건과 맬서스주의」, 『영국연구』 8, 2002.
- 이성숙, 「영국 빅토리아 시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학적 담론: 남녀클럽(1885-1889)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 2004.
- 이진경, 「근대적 생명정치의 계보학적 계기들 - 생명복제시대의 생명정치학을 위하여 -」, 『시대와 철학』 18권 4호, 2007.
- 정세권, 「인간에 대한 “미국식 과학”의 형성: 대번포트(Charles Benedict Davenport)의 우생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0권 1호, 2008.
- 카우시크 순테르 라잔, 『생명자본』, 안수진 옮김, 서울: 그린비, 2012.

- 토마스 램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정보 옮김, 서울: 그린비, 2015.
-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몸과 생명정치로 본 서양사』, 서울: 푸른역사, 2011.
- 황혜성, 「다채로워진 미국 이민사 연구」, 『서양사론』 93, 2007.
- 황혜성, 「미국의 이민정책-1917년 문맹 테스트법(Literacy Law) 연구-」, 『한성사학』 22, 2007.
- 힐러리 로즈·스티븐 로즈, 『유전자, 세포, 뇌』, 김명진·김동광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15.
- Bardaglio, Peter. W., *Reconstructing the Household: Families, Sex, and the Law in the Nineteenth-Century South*,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Bigelow, Maurice A., "Brief History of the American Eugenics Society," *Eugenic News* 31, 1946.
- Cole, Leon J., "The Relation of Eugenics to Euthenics," *Popular Science Monthly* 81, 1912.
- Davenport, Charles B., "Marriage Laws and Customs," *Problems in Eugenics: Papers communicated to the First International Eugenics Congress*, London: EES, 1912.
- Davenport, Charles B.,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New York: Henry Holt, 1911.
- Dean, Mitchell,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New Delhi: Thousand Oaks/Sage, 1999.
- Galton, F., "Eugenics: Its Definition, Scope and Aims," *Essay in Eugenics*, London: Macmillan, 1909.
- Galton, F., "The Possible Improvement of the Human Breed," *Essays in Eugenics*, London: Eugenics Education Society, 1909.
- Galton, F.,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1883.
- Garland E. Allen, "The Eugenics Record Office at Cold Spring Harbor, 1910-1940: An Essay in Institutional History," *Osiris*, Vol. 2, 1986.

-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oller, (ed.),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 Mentalit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 Holt, Marilyn Irvin, *Linoleum, Better Babies, and the Modern Farm Woman, 1890 -1930*, Univ of New Mexico Pr., 1995.
- Jackson, Jr., John P., *Science for Segregation: Race, Law, and the Case against Brown v. Board of Education*, NYU Press, 2005.
- Kevles, Daniel J., *In the Name of Eugenics: Genetics and the Uses of Human Heredity*, New York: Alfred A. Knopf, 1985.
- Laughlin, Harry H., *Biological Aspects of Immigration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House of Representatives Sixty-Sixth Congress Second Session April 16-17, 1920* Statement of Harry H. Laughlin, 1921.
- Lenke, Thomas, *Eine Kritik der politischen Vernunft: Foucaults Analyse der modernen Gouvern ementalitat*, Berlin/Hamburg, Argument Verlag, 1997.
- Leonard, Thomas C., "American Economic Reform in the Progressive Era: Its Foundational Belief and Their Relation to Eugenic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41 (1), 2009.
- Mehler, Barry, *A History of the American Eugenics Society, 1921 -1940*,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1988.
- Metcalf, Maynard M., "Eugenics and Euthenics," *Popular Science Monthly*, 84, 1914.
- National Conference on Race Betterment, Proceedings of the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Race Betterment*, Battle Creek, Mich., Gage Printing Company, Ltd, 1914.
- Osborn, Frederick, "History of the American Eugenics Society," *Social Biology*, 21, 1974.
- Parsons, Elsie Clews, *The Family*, New York: G.P. Putnam's Sons, 1906,
- Rentoul, Robert R., *Race Culture: Or, Race Suicide*, N.Y.: Walter Scott, 1906.

- Richards, Ellen H., *Food Materials and their Adulterations*, Boston: Whitcomb & Barrows, 1906.
- Richards, Ellen H., *The Cost of Shel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05.
- Rydell, Robert W., *World of Fairs: The Century of Progress Exposi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3.
- Sherbon, F. B., "Popular Education," *Eugenics*, 1, 1928.
- Smith, Jesse S., "Marriage, Sterilization and Commitment Laws Aimed at Decreasing Mental Deficiency," *Journal of Criminal Law*, 5, 1914.
- Vernier, Chester, *American Family Laws*,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1.
- Jo Youngran, "Eugenics, Public Health, and the Control of Tuberculosis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Britain," 『한국과학사학회지』 15, 1993.

<Abstract>

## **Bio-Politique in America, 1890s-1930s**

Ho-Yeon Kim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historical case of bio-politique by investigating that biomedical knowledge and population management could be utilized as the strategic tool of the national operation focusing on eugenical practice in America. Since mid-19th century in the US, eugenical practices were the objective cases that bio-political mechanism had been op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exclusion(erase and enhancement). This is a good basis to figure out that the scientific knowledge of eugenics and the biological quality management for the people are important as a national governing strategy. This study examined 'national efficiency - social progress - biological quality of population - science knowledge - eugenics - law and various practice' in America. As such, America in the transition period of 20th century could be a major stage for biopolitics. To prove this, eugenical legal execution and positive eugenics program case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n the bio-politique in this study. **(Hanyang University)**

Key-Words: USA, Bio-Politique, Eugenics, Power, Politics

주제어: 미국, 생명정치, 우생학, 권력, 정치